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48.39	↓ 코스닥	745.18
	(+3.46)		(-4.41)
↑ 금리 (미국 9년)	2.651	↑ 환율 (원·달러)	1453.35
	(+0.018)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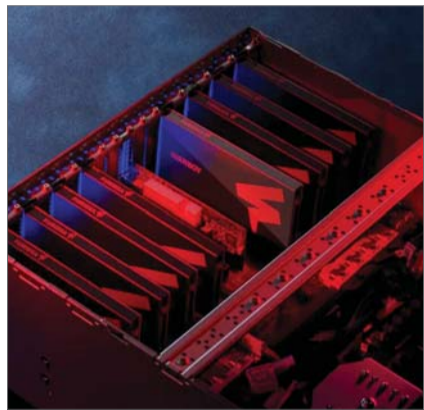
금값 천정부지
펀드 수익도 경풍
02



메타, '퓨리오사AI' 인수 추진

韓 반도체기술, 빅테크에 통했다

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쟁점음
엔비디아 과의존 탈피 행보
메타, AI 인프라 투자 94조 예고
인수 소식에 창투사 주가 급등
DSC·TS인베스트먼트 상한가



퓨리오사AI는 AI 반도체 팹리스(설계회사)로 지난해 첫번째 AI 반도체 '워보이(Warboy)' 양산에 성공했다. 메타는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퓨리오사AI의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사진은 퓨리오사AI의 1세대 반도체 워보이의 모습. /퓨리오사AI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미국 메타(META)가 한국 인공지능(AI) 칩 설계 벤처기업 퓨리오사AI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는 퓨리오사AI 인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달 중 인수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창업투자회사와 국내 반도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퓨리오사에 투자를 한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 등의 창투사 주식은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3·12면) 퓨리오사AI는 서버향(向)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AMD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 개발 엔지니어 이력이 있는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다.

2021년 첫 번째 AI 반도체 '워보이(Warboy)'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차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RGNID)'를 공개했다. 퓨리오사AI가 지금까지 조달한 자금은 약 1억1500만달러(약 1672억원)에 달한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이에 메타를 포함해 MS, 알파벳(구글), 오픈AI 등이 잇따라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메타의 퓨리오사AI 인수 소식은 AI 기술 박빙 이후 엔비디아 과의존 문제를 겪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현상향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초고속 데이터 연산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해당 연산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과 칩은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거의 유일하다.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엔비디아의 최상위 반도체 상품 B100은 1개당 5000만원에 달하지만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이에 메타를 포함해 MS, 알파벳(구글), 오픈AI 등이 잇따라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초미세먼지로 뿌연 도심 수도권이 초미세먼지 나뭇을 보인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내가 초미세먼지가 섞인 안개로 덮여 있다. /뉴시스

반도체·자동차 등 투자 늘린다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계획

이차전지·철강 분야는 위축 예상
안덕근, 투자 계획·촉진방안 논의



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야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는 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 분야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지난해 110조 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국내투자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와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대 제조업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110조원) 대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국내투자를 주도한 결과다.

올해도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가 전체 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자동차는 미

10대 제조업은 이들 4개 분야를 포함해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으로 2023년 기준 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들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대한상의, 산업연구원과 함께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투자계획과 업종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들은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동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울시 '잠·삼·대·청' 토허제 즉시 해제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14곳은 유지
아파트 291곳·신통기획 6곳 해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아파트 14곳은 유지된다.

서울시는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키로 했다. 시는 이날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힘들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

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이번에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도에 따른 매수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

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i@

메트로 한줄뉴스



▲민주 "‘명태균 특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김선민 "민주공화정 믿는 이들 연대해야 극우 파시즘 제거" /사진 뉴시스

▲유승민 "尹에 데었는데 또 '검사' 한동훈 찍어 주겠나"
▲신원식, 日국가안보국장과 첫 화상회의… "한일 공조 지속 재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전 피살 초등생 빈소 조문
▲오세훈 "검찰, 명태균 관련 빠른 수사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해달라"